

서애 유성룡의 상소문을 통해본 소통의 미학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소통의 미학 상소문
3. 임진왜란과 류성룡의 상소, 그 소통의 미학
4. 결론

1. 문제의 제기

서애 유성룡(1542~1607)이 살았던 16세기 후반은 조선의 성리학이 최고 발달했던 시기이면서 당파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이다. 조선 건국이후 200여 년 동안 큰 전쟁 한 번 없이 평화를 누리오던 조선에서 미증유의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국가는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였고 혼란은 극도에 달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정국이였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극복한 名宰相으로 너무도 유명한 경륜가이다. 또한 그는 退溪 李滉의 제자로 한국 유학사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서애는 도학자로서의 학문과 사상적 기초를 확립하고 그 기초위에 정치가로서의 경륜과 포부를 펼쳤던 경세가였다. 그의 상소문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정보와 소통의 현실대응논리가 잘 드러나 있다.

朝鮮에는 學者와 文士는 많으나 한 시대를 경위한 經綸家は 적다. 당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程朱의 학설과 班馬의 장구를 철습하는 이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대의명분을 구실로 삼아 다소 허명을 추구하는 비루하고 고지식한 경향을 나타내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大義名分을 위하여 함부로 對外硬을 부르짖는 이와 그렇지 않으면 仁義와 空彈을 가져 國防의 대분을 삼으려 하는 迂遠하고 無謀한 儒者類의 경륜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당대의 현실을 직시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一國의 정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잘해 가자는 경륜가는 희귀하다. 조선 선조 당시 임진왜란을 당하여 당대 조선 최고의 경륜가로 서에 유성룡을 제 일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서애에 대한 연구는 철학, 문학, 정치, 국방, 등 다방면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¹⁾ 그러나 서애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번 동방한문학회의 주제가 “疏通과 한문학”이다. 疏通은 上疏의 ‘疏’자와 그 뜻이 통한다. 상소와 소통은 둘 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한다. 인간세계 어느 곳이든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은 서로 다른 계층이나 이질적인 문화 같은 不通의 상대성을 인식한 전제 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금 세계의 인문학적 화두는 문화와 소통이다. 소통 부재의 시대에 한문학에서 그 길을 모색해보자는 것이 이번 동방한문학회의 기획 주제이다. 상소문의 장르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미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소통의 어원은 한문이었다. 상소문의 연구는 문장을 인용해야하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한계가 있다. 이 기획 주제에 맞추어 임진왜란 당시에 서애 유성룡이 올린 상소문을 고찰하여 그 소통의 미학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1) 김광순(1979); 김호중(1994); 금장태(1995); 조정기(1984); 김시황(1994a); 김시황(1995b); 조민경(2005); 강성준(2005); 최종호(2006); 신두환(2007).

2. 소통의 미학 상소문

上疏와 疏通은 서로 관련이 깊다. 상소 대한 문체는 소통의 명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부족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 인간은 소통을 떠나서 살 수 없었고, 황제와 제후, 재상과 신하가 있게 되면서 보고와 찬양을 위한 소통의 위대한 문장도 있게 되었다. “堯는 四岳의 제후에게 소통을 위한 상담을 구했고, 舜은 8명의 제후에게 명을 내렸다. 중국 고대 제후는 천자에게 정치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것이 상소문의 시작이다.”라고 하였다. 정치상황의 진술은 시대마다 없을 수 없었고, 천자에게 올리는 문장이니 만큼 품격과 형식이 없을 수 없었다. 여기에 수사학을 동원한 소통의 미학이 존재한다.

소통을 위한 상소문의 최초의 형식을 유추해 보면 ‘章’이나 ‘表’가 여기에 해당한다. ‘章’은 ‘明’이고, ‘밝히다’의 의미이다. 『시경』에 『爲章于天』 즉, ‘하늘에 문장을 이루다’라는 것은 문체의 밝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예품에 있어서는 홍백의 자수를 ‘章’이라고 부른다. ‘表’는 ‘標’다. 『예기』에 『표기』 일편이 있는데 미덕이 질서에 나타난 것을 이르고 있다. 측량기에 있어서는 그림자의 길이를 잴 것을 ‘表’라고 하였다. ‘장’이나 ‘표’의 명칭은 아마도 이런데서 따온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²⁾ 임금과 신하 사이의 다양한 소통의 양식들은 다양한 수사학의 문체를 탄생 시켰다.

上疏는 군신간의 소통을 위한 문체의 이름이다. 상소란 임금에게 올리던 글로, 중국 秦나라 이전에는 上書라고 하였으나, 진나라 때는 奏라고 하고, 漢나라에 이르러서는 章·奏·表·議로 세분하였으며, 그 후 奏議·奏疏 등의 이름을 붙였다. 따라서 상소문은 군신 간의 소통을 위한 왕조 사회 관각문학의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은나라의 太甲이 왕위에 오르자 이윤은 훈계의 글과 찬양의 글을 지어

2) 劉勰, 『文心雕龍』, 『章表第二十二』, 『奏啓』 등 참조.

소통을 구했고, 소통의 미학으로 문리가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아래로 내려와서 춘추전국시대에 와서도 군주에게 일을 말한 것을 모두 소통을 위한 상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上書라고 하였다. 진시황이 처음으로 황제가 되자 제후와 예를 달리해야 했다. 최초로 황제와 제후의 소통이 필요했고 상소의 명칭도 달라야 했다. 진나라 초에 와서는 上書를 奏라고 하였다.

한나라에 이르러서 예의가 정해지면서 곧 ‘四品’이란 것이 있게 되었는데 첫째를 章, 둘째를 奏, 셋째를 表, 넷째를 議라고 하였다. 이들은 각각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章, 죄를 지적하는 것을 奏, 소원을 말하는 것을 表,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議 등으로 일단 정해진 틀은 있었으나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았다. 또, 魏·晉 이하에서는 啓, 唐에서는 表·狀, 宋에서는 劄·狀·書·表 등으로 많이 쓰였다. 한나라 이래로 上奏의 문서를 上疏라고도 하였다.³⁾ 상소는 군신간의 소통을 위한 문체로 발전하였으며 그것은 곧 소통의 미학이었다.

吳納은 『文章辨體序說』 「奏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금과 신하가 만나서 비록 한마디 말이라도 남김이 있으면 상하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 비록 천만 마디의 말이 있다고 해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신하가 된 자는 오직 충애의 정성을 담게 될 뿐이다”라고 하니 진실로 그렇다.⁴⁾

奏疏(상소문)의 문체의 특징은 그 엄격함이다. 신하가 임금과 술자리를

3) 劉勰, 『文心雕龍』, 「章表第二十二」. “降及七國, 未變古式, 言事於主, 皆稱上書, 秦初定制, 改書曰奏, 漢定禮儀, 則有四品, 一曰章, 二曰奏, 三曰表, 四曰議, 章以謝恩, 奏以按劾, 表以陳請, 議以執異.”

4) 吳納, 『文章辨體序說』, 「奏疏」. “昔人有云 ‘君臣相遇, 雖一語而有餘, 上下未孚, 雖千萬言而奚補, 爲臣子者, 惟常罄忠愛之誠而已爾’ 信哉.”

같이하다가도 신하로서 충간을 하거나 사회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것은 그대로 목살될 수가 없다. 군신 간의 소통에는 특별한 예가 있어야 한다. 비록 한 자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철저하공심으로 돌아가 滅私奉公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신 간의 사사로운 소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소는 公的인 문장으로 사심이 없어야 한다. 비록 수천 마디의 상소일지라도 사적으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한다. 상소문의 문체에는 오직 滅私奉公과 忠愛의 정성만이 담겨있을 뿐이라고 하여 군신간의 소통의 미학은 문체의 성격에 대한 엄격성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吳納은 “堯舜시대 夏禹氏, 皐陶 등이 계책을 진술한 이래 商의 伊尹, 周의 姬公에 의해 드디어 『伊訓』과 『書經』의 『無逸』 등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文辭로서 임금에게 고한 시초였다. 漢의 高·惠 때는 문사로서 일을 진술했다는 것은 들리지 않다가 孝·文에 이르러 언로를 넓게 열자 이에 賈山이 至言을 바쳤고, 賈誼가 政事를 上疏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진언하는 것이 날로 많아졌는데 혹은 上疏, 혹은 上書, 혹은 奏筭, 혹은 奏狀이라고 했고, 생각의 마땅함을 알리기 위하여 주머니나 봉투에 넣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을 封事라고 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⁵⁾고 했다. 군신 간의 다양한 소통의 방식이 다양한 상소의 장르를 탄생하게 했다.

徐師曾은 “奏疏는 奏, 奏疏, 奏對, 奏啓, 奏狀, 奏筭, 封事, 彈射, 등과 같은 의미로 보면서, 임금과 신하사이의 論이나 諫하는 것을 총칭하며 아뢰거나 다스리는 문장으로 그 명칭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奏疏의 명

5) 吳納, 『文章辨體序說』, 『奏疏』, “按唐虞禹皐陳謨之後, 至商伊尹, 周姬公遂有伊訓, 無逸等篇, 此文辭告君之始也, 漢高惠時, 未聞有以書陳事者, 迨乎孝文, 開廣言路, 於是賈山獻至言, 賈誼上政事疏, 自時厥後, 進言者日衆, 或曰上疏, 或曰上書, 或曰奏筭, 或曰奏狀, 慮有宣泄, 則囊封以進, 謂曰封事, 考之於史可見矣.”

칭으로써 포괄한다”고 했다.⁶⁾ 정치가 다양해지면서 소통의 양은 늘어가서 상소의 다양한 장르가 발생되었다. 위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奏에 대한 문체를 설명한 것이 『문심조룡』에 보인다.

대개 奏라고 하는 것은 明·允·篤·誠을 근본으로 하고 분석력과 통찰력을 제일로 한다. 강직한 의지라야 임무를 완성할 수 있고 넓은 식견에 의해 서만이 도리를 꿰뚫을 수 있으며 또 옛것을 참작하여 현재를 통제하고 다스리며 번잡한 것을 다스려 요점을 총괄하는 것 이것들이 그 요체인 것이다.⁷⁾

상소문은 강력한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상소의 성격상 소통의 미학을 강조한다. 이 글은 상소문의 창작 기법을 설명한 것이다. 상소문은 분명하고 진실하며 독실하고 정성을 근본으로 한 논리적인 글이다. 신하가 임금 앞에 올리는 글에 잘못이 있을 수는 없다. 사실을 분석하고 통찰하여 강직한 충성심으로 뜻을 세워야 책임을 완성할 수 있다. 현재의 정치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잘못을 비평하고 넓은 식견으로 비교하고 선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옛 신하들의 관례와 격식을 전범으로 삼아서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이해하며 번잡한 사건도 조리 있게 진술하여 문제의 핵심을 잡아서 풀어내는 장치가 바로 상소문의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상소문은 문장을 장중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對句가 많은 四六文이 쓰이고, 역대 名臣의 글을 모범으로 삼았는데, 특히 당나라 陸贄의 『陸宣公奏議』 등이 가장 유명하다. “살피보건대 『七略』이나 『漢書』 『藝文志』에 詩歌류는 반드시 기록하였으나 章·表·奏·議는 나라

6)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奏疏』. “(奏·奏疏·奏對·奏啓·奏狀·奏筭·封事·彈射)按奏疏者, 君臣論諫之總名也. 奏御之文, 其名不一, 故以奏疏括之也.”

7) 劉鏐, 『文心雕龍』, 『奏啓第二十三』. “夫奏之爲筆, 固以明允篤誠爲本, 辨析疏通爲首, 強志足以成務, 博見足以窮理, 酌古御今, 治繁總要, 此其體也.”

를 다스리는 중추인데도 빠뜨리고 편찬하지 않는 것은 각각 옛일이 있고, 그 직책과 맡은 일에 있었다. 前漢시대의 表는 그 남아 있는 것이 적지만 後漢시대에 미쳐서는 인재를 관찰하고 천거할 때에 반드시 章·奏를 시험하였다. 左雄의 奏·議는 내각에서 모범으로 삼았고, 胡廣의 章·奏는 천하의 제일이었는데 그들의 작품은 어느 것이나 당시의 걸작이었다. 伯始의 『謁陵之章』에는 죽히 그典雅한 문장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다.⁸⁾”고 하여 상소문에도 문장의 품격 개념이 있음을 보여 준다. 상소문은 소통의 미학이다.

유협은 『문심조룡』 「奏啓」에서 奏의 문체를 찬양하여 다음과 같이 읊조리고 있다. “궁궐에 상주하여 왕좌 앞에서 가부를 진술한다. 언어는 바로 명석하게 주장은 장대하고 응혼하게 하며, 경건하게 절도를 지키며 조리를 세워서 시종을 일관한다. 군자가 문필을 잡으면 사령은 빛난다.”라고 하여 주의 위상을 표현하고 있다.⁹⁾

또 상소문을 찬하여는 검은 주머니의 밀서를 취급한 사직은 정교의 풍기를 단속하여 부정을 없앤다. 붓은 전장의 무기보다도 날카롭고 먹의 자태는 독이든 술을 머금은 것과 같다. 뼈를 깎은 듯한 신랄한 입장에서라도 험뜯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른 정책을 진정할 때만이 훌륭한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¹⁰⁾

또 議와 對策을 칭찬해서 말하기를 “議는 정치에 참여하여 제안할 때는 명실상부가 요구된다. 이론은 단정으로 강건해야 하며 수사에 떨어져서 유약해서는 안 된다. 궁정에 펼쳐진 대책은 때를 같이하고 조화가 계획

8) 劉勰, 『文心雕龍』, 「章表第二十二」. “按七略藝文, 謠詠必錄, 章表奏議, 經國之樞機, 然闕而不纂者, 乃各有故事而在職司也, 前漢表謝遺篇寡存, 及後漢察舉, 必試章奏, 左雄奏議, 臺閣爲式, 胡廣章奏, 天下第一, 並當時之傑筆也, 觀伯始謁陵之章, 足見其典文之美焉.”

9) 劉勰, 『文心雕龍』, 「章表」 참조.

10) 劉勰, 『文心雕龍』, 「奏啓」 참조.

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을 고양하고 바른 계획을 멀리 전파하여야 한다.”¹¹⁾고 하여 上奏, 上疏, 議, 對策 등을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상소문은 동양최초의 문체였고, 왕조시대 관각문체의 중요 장르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위상을 면면히 유지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소문의 문체가 중요시되어 일찍부터 사용되어 왔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과거시험의 필수 과목이 되기도 했다. 우리 역사상 상소문은 문장의 양이나 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위상은 간과될 수 없을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諫官 등이 주로 임금에게 정사를 간하기 위해 올리던 글을 上疏라 하고 의견서나 품의서는 上奏라 하여 疏와 奏를 구분하였다. 『동문선』에서는 奏議와 筭子를 구분했다. 奏議는 金后稷의 上眞平王書, 薛聰의 諷王書 등에서 출발하여 33편이 실려 있으며, 그 명칭은 上書, 書, 陳書, 戒書, 請疏, 請狀, 請書, 議狀, 論疏 등으로 쓰이고 있고, 筭子는 12편이 실려있는데 모두 제목 끝에 筭子라고 되어 있다.¹²⁾ 訥齋의 상소문은 주로 事가 주류를 이루고 論·策·請 등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奏議類는 상소문이라고 통칭하여도 큰 잘못은 없다고 생각된다.¹³⁾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소라는 용어로 통칭한다.

3. 임진왜란과 유성룡의 상소, 그 소통의 미학

유성룡은 경북 의성 점곡 사촌에서 태어났고, 자는 而見이고 호는 西厓 혹은 雲巖이며 시호는 文忠, 본관은 豊山이다. 金誠一과 동문수학했으며

11) 劉勰, 『文心雕龍』, 「議對」 참조.

12) 徐居正 外, 『東文選』, 52권~56권, 「奏議」 참조.

13) 신두환(2004), 235~263쪽.

서로 친분이 두터웠다. 젊었을 때 총명하고 박학하였으니, 陶山에서 李滉을 처음 뵈었을 때에 李滉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늘이 낸 자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시절 성리학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성리학은 전쟁에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었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다. 서애의 상소는 성리학의 철학적 기초 위에 행해진 것이다. 그가 중요시하던 “천지를 위해서 마음을 세우고, 생민을 위해서 명을 세우고, 옛 성인을 위해서 꿇긴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해서 태평을 연다.”¹⁴⁾는 성리학의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명분을 외쳤다. 그는 “儒者란 명칭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그 도는 어느 시대에 융성하였는가? 천지를 위해 기본 이치를 세우고, 生民을 위해 표준을 세우고, 萬世를 위해 태평을 열어 주는 일은 유자가 감당해 낼 일인데, 알 수 없도다. 어떻게 닦아야만 그렇게 되도록 하겠는가?”라고 책문을 낸 적이 있었다. 서애는 이것을 바탕에 두고 임진왜란의 혼란기를 헤쳐나갔다.

실제로 미증유의 난리 임진왜란을 당하여 의병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리학의 선비정신은 憂國愛民의 지사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 구하는 선비정신의 표출은 성리학의 공이었다. 성리학은 임진왜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에는 수긍할 수 없다. 물론 타락한 관료들도 많았지만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선비들의 투혼은 성리학에서 나온 것이며 임진왜란의 역사를 의병으로 장식한 것도 성리학이었다.

유성룡은 1590년 우의정에 승진, 光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 우의정으로 이조판서를 겸하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해 역시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이 해에 建儲問題로 서인 鄭澈의 처벌이

14) 朱熹, 『近思錄』卷2, “爲天地立心, 爲生民立命, 爲王聖繼絕學, 爲萬世開太平.”

논의될 때 동인의 온건파인 南人에 속해 같은 동인의 강경파인 北人의 李山海와 대립하였다.

유성룡은 왜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형조정랑 權慄과 정읍현감 李舜臣을 각각 의주목사와 전라도좌수사에 천거하였다. 그리고 경상우병사 曹大坤을 李鎰로 교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鎭管法을 예전대로 고칠 것을 청하였다. 임진왜란의 징조를 보이자 유성룡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 정황을 탐색하게 했다. 정보와 소통은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사신의 행차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와 정박하자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馳啓하면서 ‘필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復命한 뒤에 상이 引見하고 하문하니, 황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용과 같은 의견을 아뢰었고, 김성일은 아뢰기를,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하였다. 상이 하문하기를, “풍신수길어 어떻게 생겼던가?”하니, 윤길은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락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고, 성일은 아뢰기를,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죽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하였는데, 이는 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었다. 당시 趙憲이 和議를 극력 공격하면서 왜적이 기필코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황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두가 ‘西人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하니, 김성일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¹⁵⁾

15) 『선조수정실록』, 25권, 24년(1591) 3월 1일(정유) 3번째 기사.

이 역사적 사실은 임진왜란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황윤길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풍신수길의 인물됨을 묻는 왕의 질문에 지략이 뛰어난 인물로 보였다고 했다. 여기에 비해 김성일은 “일본은 침략의 징조가 없다”고 했고, “풍신수길의 외모를 판단하면서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된다.”고 했다. 이시기 좌의정이었던 유성룡은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보고를 듣는 순간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했다. 사신행차는 정사, 부사, 서장관으로 꾸려진다. 정사는 황윤길이었다. 부사는 김성일이었고, 서장관은 허균의 형, 허성이었다. 정사와 부사 서장관은 서로 등급이 달랐다. 김성일은 왜 정사 황윤길의 직책을 월권하여 의견을 반박하였을까? 이는 당파싸움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순간에 아직도 당파싸움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니 그것도 왕의 질문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며, 임금과 신하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성일은 퇴계의 고제자로서 추앙받는 영남 성리학의 대들보였다. 퇴계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유성룡은 김성일의 보고에 황당하였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다. 그러면 서도 김성일이 온 나라가 놀라고 동요될까 두려워서 그러했음도 이해하였다. 실지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경상도와 호남의 백성들은 줄을 이어 북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남쪽지방은 텅 비게 된다. 이어지는 혼란은 예상할 수 없는 극도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유성룡과 김성일은 퇴계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지만 그 성격은 서로 달랐다. 좌의정이었던 유성룡의 국량은 이들의 상반된 보고를 듣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징조가 있다고 판단한다. 유성룡은 침착하며 차분하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개월 전에 유성룡은 다음과 같이 중국황제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왜왕 關白이 일본 66주를 통합하고 조선을 쳐서 이겼으며, 사신을 유구에 보내어 항복하기를 강요하였다. 또한 各州로 하여금 배를 만들고 군사를 모으게 하며, 내년 9월에 明을 치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였습니다.” 하였으므로, 이미 병부가 복건·절강·직례의 제독 수비에게 회답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 조선과 일본이 비록 함께 바다에 있는 섬이지마는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으로 멀리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조선과 싸워 이겼다면 배가 연이어 건너오는 것이 어찌 1천 리에 그칠 것이며, 위급함을 고하는 羽檄이 어찌 한마디도 없겠습니까. 하물며 조선은 해마다 정사를 받들고 대대로 은혜를 입어 본래 예의의 나라라고 일컬어서 사람마다 충성과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찌 한 번 전쟁의 승부로 인하여 적에게 따르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갑자기 향도가 되겠습니까? …… 금년 6월에 대마도주 종의조가 아들 宗義智를 보내어 포구에 와서 급한 일을 알리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 관백이 병선을 크게 수리하여 장차 명나라를 칠 것이니, 귀국 지방도 응당 피해를 입을 것이다. 만일 귀국이 명나라에 먼저 알려 화해를 얻어 주면 이런 화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은 확실하다고 여길 수만 없을까? 왜적들은 협박하고 공갈까지 하여 그 사정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¹⁶⁾

서에는 외교문서에 능하였다. 임진왜란의 징조를 일리는 유성룡의 상소에는 일본이 명나라가 조공을 거부한 것에 대해 양심을 품고 우리나라를 향도로 삼아 명나라를 치겠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전쟁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었다. 조선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유성룡은 일본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전쟁의 징후를 포착한다. 서에 유성룡은 중국의 황제에게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징조를 조사하여 상주문 형식으로 보고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통의 통로를 열고자 하였다.

신묘년(1591, 선조24) 倭의 정세를 진술하는 주문에는 일본의 침략을

16)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3, 『陳倭情奏文』.

예견하는 예리한 관찰과 이를 정리하여 명나라 14대 신종 황제에게 간절하게 알리는 외교문서에는 사태의 심각성이 잘 부각되어 있고 정성과 예의가 넘쳐난다. 여기에서 정보와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상소문은 응지의 설계와 경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술 문장이 된다. 상소는 소통의 미학이었다.

1592년 3월에 일본 사신이 우리 경내에 이르자, 宣慰使를 보내도록 청했으나 유성룡이 허락하지 않아 일본 사신이 그대로 돌아갔다. 그 해 4월에 판윤 申稔과 軍事에 관해 논의하며 일본의 침입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였다. 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이 20만 병사로 조선을 침공하자 조선의 조정은 발각 뒤집혔다. 선조는 전쟁의 기미가 없다고 했던 김성일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에 대해 『선조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간이 大臣을 體察使로 삼아 여러 장수들을 檢督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청하였다. 李山海가 柳成龍을 보낼 것을 청하니 임금이 따랐다. 좌상 유성룡은 체찰사로서 미처 떠나기도 전에 적이 가까이 왔으므로 서울에 머물면서 지키도록 명하였다. 이때 경상 우병사 金誠一을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였다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석방시켜 도로 본도의 招諭使로 삼고, 함안 군수 柳崇仁을 대신 병사로 삼았다. 이에 앞서 상은 전에 김성일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적이 틀림없이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인심을 해이하게 하고 국사를 그르쳤다는 이유로 의금부 도사를 보내어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일이 장차 측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 있다가 성일이 적을 만나 교전한 상황을 아뢰었다. 처음에 김성일이 상주에 이르러 왜구의 침입을 듣고는 本營으로 달려가 전 병사 曠大坤을 머물게 하여 함께 군사를 다스렸었다. 이때 적이 김해에서 벌써 경상우도에 들어왔는데 김성일이 갑자기 적의 척후와 마주치게 되었다. 좌우에서 물러나 피하려 하였으나 김성일이 말에서 내려 胡床에 걸터앉아 동요되지 않고 군관 李宗仁으로 하

여금 말을 타고 달려가 한 명의 왜장을 쏘아 죽이게 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로 인해 조금 안정되었다. 유성룡이 김성일의 이 같은 충절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상의 노여움이 풀려 이와 같은 명이 있게 된 것이다. 김성일의 죽을 목숨을 유성룡이 살려준 셈이다. 김성일은 선조가 잡아오라는 명을 듣고 말을 달려 稷山에 이르렀다가 또 招諭(초유사 : 난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을 타일러 경계하는 일을 맡아 하던 임시 벼슬)하라는 명을 듣고는 도로 본도로 달려가 의병을 불러 모았다. 처음에는 김성일을 아무도 믿지 않다가 경상도에 김성일을 추종하는 학자들이 점점 형세를 이루어 한 道가 그를 믿게 되었다.¹⁷⁾

유성룡은 병조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로 軍務를 총괄하였다. 유성룡이 임금에게 알리는 소통의 방식에는 신뢰와 증거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바탕이 되어 있었다. 유성룡의 간곡한 상소는 김성일을 살렸다. 한편 왜군은 세 갈래 길로 북진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하는 제1군은 부산·밀양·대구·상주·문경 등을 거쳐 충주에 이르고, 제2군은 가토 기요마사가 인솔하여 울산·영천 등을 거쳐 충주에서 제1군과 합세하여 한양으로 진군하였으며, 구로다 나가마사의 제3군은 김해를 지나 추풍령을 넘어 북진하였다.

4월28일 충주에서의 패전 보고가 이르자 상이 대신과 대간을 불러 入對하게하고 비로소 파천에 대한 말을 발의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극언하였다. 영중추부사 金貴榮이 아뢰기를, “종묘와 원릉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우승지 申礫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엔 80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하고, 수찬 朴東賢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일

17) 『선조수정실록』 1592년 4월14일 기사 참조.

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輶을 멘 인부도 길 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하면서, 목놓아 통곡하니 상이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¹⁸⁾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는 항상 저자세만 아니었다. 선조임금의 파천이 논의되자 관료들의 항의 행동은 의외로 강경하였다. 임금의 얼굴 빛이 변할 정도로 신하들의 주장은 거칠고 격렬하였다. 임금과 신하의 소통은 하향 일방적인 소통만이 아니라 상향 항의의 소통 방식도 있었다. 유성룡은 영의정이 되어 왕을 扈從, 평양에 이르러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서애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성리학적 선비 정신에 입각하여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충정을 표하였다.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格君心

왕도를 펼치며

陳王道

의로운 길을 열며

闢義路

이욕의 근원을 막는다

塞利源¹⁹⁾

이것은 성리학적 선비정신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때를 당하여 성리학으로 무장된 선비정신의 표출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충정을 표출하고 있었다. 관료들은 성리학의 선비정신으로 임금과 소통하고 있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관료 선비들의 충정은 임금을 강경한 어조로 바로잡는 것이었다. 관료들의 선비다운 행동에 선조는 당황하여 임금의 체통을 잃어버렸다.

18) 『선조실록』 1592년 4월28일 기사 참조.

19) 이 말은 율곡 이이의 『도봉서원기』에 나오는 것으로 조광조의 말을 빌어서 한 것이다.

5월 1일 임금이 東坡館을 출발하였다. 이날 아침에 임금이 대신 이산해와 유성룡을 불러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괴로운 모습으로 이르기를, “李某야 柳某야!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말하라.”하고, 또 윤두수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에게 하문하니, 여러 신하들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임금이 이항복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승지의 뜻은 어떠한가?”하니, 대답하기를, “거가가 의주에 머물 만합니다. 만약 형세와 힘이 궁하여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바로 명나라에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하자, 두수가 아뢰기를, “북도는 군사와 말이 날래고 굳세며 함흥과 경성은 모두 천연적인 요새로 믿을 만하니 재를 넘어 북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이 어떠한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안 됩니다. 임금의 수레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內附(한 나라가 다른 나라 안으로 들어가 붙음)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하니, 유성룡이 안 된다고 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신이 말한 것은 곧장 압록강을 건너자는 것이 아니라 극단의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하고, 유성룡과 반복하여 논쟁하였는데, 유성룡이 말하기를, “지금 관동과 관북 여러 길에 그대로 있고 호남에서 충의로운 인사들이 곧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잡자기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이산해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유성룡이 물러나와 이항복을 책망하며 말하기를, “어떻게 경솔히 나라를 버리자는 의논을 내놓는가. 자네가 비록 길가에서 임금을 따라 죽더라도 궁녀나 내시의 충성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한번 퍼지면 인심이 와해될 것이니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하니, 항복이 사과하였다.²⁰⁾

유성룡은 “임금의 수레가 우리국토 밖으로 한걸음만 옮겨도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것은 나라를 잃는 경우이다. 만약 이것이 실행되었다면 역사는 치욕스럽게 바뀌었을 것이다. 유성룡은 선조임금의 뜻을 꺾고 또 꺾으면서도 굳심을 바로잡고, 왕도를 펴며, 의로

20) 『선조수정실록』 1592년 5월1일 기사 참조.

운 길을 열며, 이욕의 근원을 막으면서 나라를 구했다. 한 국가를 사수하고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혼란 시대를 이끌어 가는 유성룡의 리더십의 기초는 성리학이었다. 서애는 선조를 임금의 전쟁공황으로 방황하는 것을 간파하여 임란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유성룡은 강력한 선비정신으로 선조와 소통하고 있었다.

6월10일 임금이 평양에 있었다. 中殿이 함흥으로 가기 위하여 궁속들이 먼저 나가자, 평양 군민들이 난을 일으켜 몽둥이로 宮婢를 쳐 말 아래로 떨어뜨렸으며, 호조 판서 洪汝淳은 길에서 亂兵을 만나 맞아서 등을 다쳐 부축을 받고 돌아왔다. 거리마다 칼과 창이 삼엄하게 벌여 있고 고함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는데 모두들 임금의 수레가 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려 하였다.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전에도 성을 지키자는 계책을 고수하여 三司와 서로 다투었는데 이때에도 여러 신하들과 임금 앞으로 바로 들어갔다. 임금이 활을 차고 뜰 가운데에서 산보하면서 가마가 준비되었다는 보고를 기다리다가, 유성룡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전상으로 올라가 앉으니, 柳成龍 및 承旨, 奉教 奇自獻 등이 입시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왜적의 문서에 ‘앞으로 강화가 이루어지면 돌아가겠다.’고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상께서는 이곳에 머물러 계시고 서쪽으로 가지 마소서.”하니, 자헌이 아뢰기를, “만약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城池나 器械가 여기만한 곳이 없으니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그렇지만, 왜적의 강화를 청하는 문서를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적이 동래·상주에 있을 적에도 모두 문서를 보냈었는데도 점점 깊숙이 쳐들어 왔으니, 이것은 문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문서는 참으로 믿을 수 없는데, 이것을 믿고서 평양을 떠나지 않을 계획을 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하였다. 임금이 자헌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하니, 유성룡이 자헌에게 말하기를, “비록 그렇지만 信義가 있다면 어찌 믿지 않겠는가.”하였다. 대개 이때의 여론이 유성룡의 전일 왜적과 통신한 것을 잘못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헌이 유성룡의 말을 인하여 왜적과 통신하는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날 성안의 亂兵들이 소란을 피워 그치지 않으므로 中殿이 끝내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관찰사 宋

言愼이 그 휘하를 시켜 난을 주동한 사람 두어 명을 참수해서 효시하여 군중을 경계하니 군중들이 마침내 진정되었다.²¹⁾

선조는 틈만 보이면 요동으로 가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 유성룡은 늘 임금과 맞서서 간곡한 어조로 상소하여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관료들도 동요하여 요동으로 가려고 결정을 내려도 번번이 유성룡에 의해 막혔다. 유성룡과 임금의 대립은 심각한 지경에 까지 이른다. 그럴 때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끝낼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온갖 계책을 내면서 버티고 있었다.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유성룡과 왜군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조정의 반대여론은 신뢰에 있었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일방적 소통이더라도 그 확고한 믿음과 충정에 찬 상소는 통하는 것이다. 만약 그 때에 선조의 뜻대로 했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유성룡의 우국 애민하는 정성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치욕스럽게 바뀌었을 것이다. 상소는 강한 실천적 의지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6월11일 유성룡이 다음과 같이 致啓 하였다. 치계는 왕에게 보고하는 소통의 형식이다.

“卯時에 왜적 수백騎가 모두 雜色 旗幟를 가지고 강가 백사장에 주둔하여 오가며 치단기에, 바로 역관에게 明朝의 差人을 불러오게 하였더니,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바라보고서는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을 뿐이라면 天兵이 한번 오면 왜적들을 섬멸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역관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왜적들은 온갖 간사한 꾀를 다 내는데 강의 상류와 하류에는 건널 수 있는 얇은 여울이 없지 않으므로 병사들을 나누어 수비하다 보니 힘이 분산되는 것이 걱정이다. 명나라 군사들이 오는 것이야말로 한 시각이 급하니, 대인은 급히 귀국하여 출병할 시기를 앞당기라.’ 하였습니다.

21) 『선조실록』 1592년 6월10일 기사 참조.

생각하건대, 지금 왜적의 기세로는 이 강을 건너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강물의 상류와 하류만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오늘 黃州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듣건대 ‘적병은 뒤따라오는 군사가 별로 없고 군량도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니,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 수일만 지탱하여 명나라 병사가 들어오게 되면 왜적들을 물리칠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신은 이곳에 있으면서도 이미 兵務에 참여하지 않아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 다시 事勢를 관망하다가 中道로 달려 나아가 명나라 장수에게 위급함을 알려서 제때에 달려와 구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²²⁾

서애는 임금에게 정성을 다하여 상소하고 있다. 진정한 소통은 정성에서 나온다. 서애는 임진왜란을 명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진압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음을 직감하였다. 서애는 명나라 차인에게 왜군의 실정을 시찰하게 하고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군대를 파견하는 일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랐다. 서애는 명나라 군대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상소를 올렸다. 서애는 명나라 14대 황제 신종 만력제 주익균(1573~1620)에게 치계로 구했다. 유성룡이 명나라 군대에게 파병을 요구하자 선조는 적이 안정이 되는 듯했다. 그 이후 임금이 유성룡을 만나기만 하면 명나라 군대를 접대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명나라 군대를 애태게 기다렸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명나라 군대는 오지 않았다. 서애는 상소는 임금을 안정시키고 그 계책을 아뢰며 힘겨운 소통을 하고 있었다.

“경의 狀啓를 보고 적 형세의 진퇴를 대략 알았다. 그리고 이웃 고을의 홀어진 병사들은 이미 臺臣 李慶祺에게 전념하여 收束하도록 하였다. 오늘 윤근수 등의 장계를 보고, 명나라 병사가 오늘 강을 건널 것이고 겸하여 호군할 은을 恩賜한 것이 2만 냥이나 되는 것을 알았다. 경은 中路에서 영접하여 응대할 때에 감사하다는 뜻을 간곡히 표하라.”²³⁾

22) 『선조실록』 1592년 6월11일 기사 참조.

23) 『선조실록』 1592년 7월9일 기사 참조.

6월 25일 왕은 평양에서 의주로 옮기면서 유성룡 등에게 명의 군사를 접대할 계책을 세우도록 명령했다. 평양을 벗어나려다가 번번이 유성룡에게 막히었던 선조는 유성룡보다 한발 앞서 의주를 벗어났다. 서애의 장계는 비교적 상세하였던 모양이다. 유성룡의 장계를 보고 적의 형세와 진퇴의 대략을 알았다고 했다. 장계 역시 상소이다. 전쟁과 상소 그 많은 문제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보고하는 관료의 글쓰기는 간곡하고 정성이 넘쳐났다. 유성룡은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도체찰사가 되어 군무를 총괄하였다.

狀啓는 지방에 파견된 관원이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글로 써 보고하는 것이다. 6월23일 선조가 또 요동으로 가는 일을 준비하라고 전교하였다. 틈만 나면 요동으로 건너가려고 신하들을 회유하였으나 신하들도 모두 유성룡에게 혼이 난 지경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선조임금에게 한 걸음 만 국경 밖으로 나가도 조선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했던 유성룡. 다시 말하면 한 걸음만 국경 밖으로 나가면 우리 임금이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런데도 선조 임금은 틈 만나면 요동타령이었다. 임금이 이지경이니 관료들이고 백성들이고 자기 살길을 찾으려고 나라를 저버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유성룡은 이런 나라를 붙들고 전장 최 일선에 서서 조선의 운명을 선조임금과 맞서며 위태위태하게 잡고 있었다. 유성룡이 선조의 명을 따랐다면 조선은 끝장이 났다. 임진왜란 전쟁 만사가 빗장을 부르며 버티는 장기판 같은데 왕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요동으로 망명하려는 뜻만 가득 차 있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 문장으로서 위태위태하게 임금과 소통하는 서애의 글쓰기는 간절하고 긴요한 것이었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에 유성룡이 명나라 만력제에게 올린 상주문이다.

무릇 위엄으로 두렵게 하여 그 완악함을 징계하고, 사랑으로 엮어매어 그

화란을 늦추게 하니, 이 두 가지는 옛 제왕들이 오랑캐를 막는 큰 방편으로, 다 같이 흉포한 것을 금지하고 生靈을 온전케 하는 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를 보아 형세를 살피는 것은 오직 성조에서 택하실 뿐이요, 어리석은 신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바라옵건대, 聖明은 왜적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찰하시고, 신의 나라 형편이 이미 위급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에게 급히 명령을 내리어, 이때에 좋은 의논을 따라 흉악한 왜적들이 못된 악을 이루는 화를 면하여 조석에 끊어지려는 신의 절박한 운명을 이어 주신다면 다행스럽기 그 지없겠습니다. 왜적 정세의 사리와 관련되므로 이에 삼가 갖추어 아뢰니다.²⁴⁾

유성룡은 임진년(1592, 선조25) 6월 의주에서 요동의 자문을 논하고 겸하여 事宜를 아뢰는 筭子를 올렸다. 筭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의 일종으로 일명 奏筭·筭文·膀子·錄子라고도 한다.

신이 병중에 엎드려 요동에서 온 자문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을 치며 한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리를 잃어서 난리를 당할 만한 연유가 별로 없었고, 시종 중국을 위하여 의리를 지키다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불과하니, 이는 실로 천지신명이 임하여 보는 바입니다. 다만 근자의 인정이 應對와 辭命하는 사이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바른말을 명백하고 통쾌하게 하지 못하고, 언제나 숨기고 엄폐하려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하여 우리나라 본래의 심정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조정에 대하여 당초부터 칭찬하여 권면하며 불쌍하게 여기는 뜻이 없었고 도리어 허물을 꾸짖는 말이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 대체로 천하의 모든 일은 시세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시세가 가 버린 뒤는 일마다 막히는 법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근일 중국에서 우리를 의심하는 것은 한가지만이 아닙니다. 변란의 보고가 늦음이 그 첫째이고, 일찍 청병하지 않음이 그 둘째며, 중국 사람의 정탐꾼(哨

24)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3, 『陳賊情奏文』.

探者]을 접대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굶주리고 곤경에 빠지게 함이 그 셋째이고, 벌써 구원병을 청해 놓고도 군량이 떨어졌다고 말함이 그 넷째이며, 중국 사람이 우리에게 항도할 사람을 청하여도 그때에 한 사람의 장교나 병사가 눈앞에 서 있지 아니함이 그 다섯째입니다. 예로부터 비록 위태하고 어려움이 극도에 달했다 하더라도 승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호위하는 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한 사람도 없으니,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평소처럼 편안함이 그 여섯째이며, 국가가 장차 위태하여 망하려 한다면 반드시 옷소매를 휘두르며 피눈물을 머금고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위급한 데로 달려 나가는 신하가 있는 법인데도 일시의 기상이 느리고 느긋하여 응대와 수작이 대개 제때보다 늦음이 일곱째입니다. 이와 같으니 어찌 명나라 사람의 의심을 일으켜 그 가책이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5)

유성룡은 소통의 부재로 중국이 조선을 의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살폈다. 유성룡은 소통이 안 이루어진 이유로 바른말을 명백하고 통쾌하게 하지 못한다 있다고 파악 했다. 상소문은 소통하고 설득하는 글이다. 논의가 명확해야 되고 예증이 적실해야 되고 주장하는 바가 명쾌해야 하는 것이다. 상소문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읽고 그 문제의 핵심을 따지고 분석하여 결과를 판단하는 공적인 글이다. 상소문의 작자가 평소 행하는 행위와도 결부되어야 하고 평소 쌓아온 인격의 바탕 위에 상소문은 이해되기 때문에 신뢰가 상당히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야만 포부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소문은 임금을 설득시키고 포부를 실현하려는 목적성이 강한 문학형식이다. 신뢰가 없으면 설득도 없다.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성룡은 명나라의 군사를 초청해 놓고도 소통을 하지 못하는 관료들에게 중국의 장수들과도 통렬하게 이해를 말하여 함께 죽을 각오로 임해야 성취할 수 있다고 그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7월 11일(무진) 드디어 명나라 장수 조승훈이 군사 5000을 거느리고 압

25)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5, 『論遼東咨兼陳事宜劄』.

록강을 건너왔다.

예조 판서 윤근수가 아뢰었다. “어제 이른 아침에 신이 洪進과 함께 탕참에 도착하여 ‘老翁가 우리나라를 위하여 수고스럽게도 멀리 왔기에 국왕이 특별히 두 陪臣을 보내어 문안한다.’ 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존망이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은전을 내려 정예한 병마를 발송하였기에 온 나라의 군민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으니, 사례하는 절을 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총병이 ‘밝은 천자의 명을 받들었으니 은혜가 조정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사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귀국은 곧 예의의 나라로서 공순한 事大가 지성에서 나왔으니 환난이 있으면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천자의 밝은 명이 있으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령을 기다려 군사를 움직이느라 시일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우리의 兵甲이 정예롭고 또 祖副將을 보내어 군사를 독려하니, 반드시 성공하여 격식이 없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어 ‘병마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총병이 ‘이미 정예롭고 씩씩한 군사 3천 9백 명을 뽑아 발송하였고 예비로 둔 병마가 8만 7천 명이다.’ 하였습니다.”²⁶⁾

유성룡이 올린 啓奏가 통하여 명나라 군대가 드디어 들어왔다. 啓奏란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의견을 글로 아뢰는 것이다. 의견을 올리는 것과 실상을 보고하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소통의 방식에도 격식이 있었다. 이후 7년간이라는 긴 전쟁이 조명연합군에 의해 전개 되었다. 유성룡은 일단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이후에 명나라 장수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조선의 체통도 떨뜨리지 않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유성룡은 간파하고 있었다.

1593년 1월9일 도체찰사 유성룡이 다음과 같이 치계하였다.

“8일 巳時에 명나라 장수가 쳐들어가 사면으로 성을 공격하였는데 포를

26) 『선조실록』 1592년 7월11일 기사 참조.

발사하는 소리가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七星門을 깨뜨리고 들어가 지금 한창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평양을 이미 수복한 듯하여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어서 삼가 먼저 치계합니다.”²⁷⁾

여기서 치계는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치계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유성룡은 명나라 장수 李如松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유성룡의 보고하는 문서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희망이 넘치고 명나라 군사들의 위용을 수사를 동원하여 찬양하고 있었다. 그 뒤 충청·경상·전라 3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이 해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의 도체찰사를 겸해 군사를 총지휘했으며, 이여송이 碧蹄館에서 대패해 西路로 퇴각하는 것을 극구 만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권율과 李薊으로 하여금 파주산성을 지키게 하고 諸將에게 방략을 주어 要害를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 4월 이여송이 일본과 화의하려 하자 그에게 글을 보내 화의를 논한다는 것은 나쁜 계획임을 역설하였다. 또 군대 양성과 함께 浙江器械를 본떠 화포 등 각종 무기의 제조 및 성곽의 수축을 건의해 군비 확충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할 것을 요청하였다. 유성룡의 치계는 거의 날마다 임금에게 보고하느라 붓끝이 마를 날이 없었다. 10월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훈련도감의 설치를 요청했으며, 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로 삼아 龍津에 주둔시켜 叛賊들의 내통을 차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百官이 司天使 憲에게 올리는 陳情文을 살펴보자.

삼가 살피건대, 우리나라가 복이 없어서 이러한 변란을 당하자 聖明하신 천자께서 크게 노하시어 흉악한 무리들을 죽여 危難에서 건져 주시니 저희 백성들은 도탄에서 벗어나고 종묘사직은 다시 완전히 보전되었습니다. 이것

27) 『선조실록』 1593년 1월 9일 기사 참조.

은 정말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고, 그 공덕은 지난 역사보다 더 높으며 德意의 두터움이 천지에 가득하니, 우리나라 군신들이 몸을 갈고 뼈가 가루가 되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 절박한 사정을 구구하게 때맞추어 사명을 띠고 계신 앞에 부지런히 여쭙어서 하늘의 태양처럼 밝으신 천차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옵건대 노야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어 잘 살펴 주십시오.

삼가 비옵건대, 노야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날날이 조정에 알리시어 우리나라가 죄를 면하고 바다 위에 있는 요사스러운 기운을 깨끗이 씻어 三韓 수 천리에 사는 백성들에게 길이 구제해 주시는 은택을 입게 하시면 어찌 다행스럽고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번거로운 말씀을 줄이지 못하고 尊威를 욕되게 하니 거듭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²⁸⁾

유성룡 등은 명나라 장수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전쟁을 독려하고 하루빨리 왜적들을 물리치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 상소문은 간절하고 축은한 언사를 마음에서 우리나라도록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화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정을 자아내게 문장을 사용하여 번거로운 것과 간략한 것이 바름을 얻어 꽃과 열매가 모두 뛰어나야 입술을 깨물거나 막히는 일이 없이 언사가 운율에 맞게 된다. 소통의 방법은 상대자와 친밀한 관계인 래포(Rapport)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명나라 군사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선의 관료들은 몸을 낮추고 또 낮추었다.

임진왜란이 한참 진행되던 1594년에 顧經略 養謙에게 回報하는 箭付를 다음과 같이 올렸다.

대저 우리나라로서는 작은 땅덩어리로 적과 버틴 지가 너무 오래되어 재력과 인력이 벌써 다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7도가 모두 부서지고 오직 전라도 한 도만이 보존되었으므로 군량미 조달은 모두 여기에서 변통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사는 모두 결판나고 농토는 다 황폐해져서 가을에 거둘 것이 없

28)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9, 『百官呈司天使憲 陳情文』.

으니, 봄이고 여름에는 아무것도 없어 관청이나 민가가 다 비었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에 널려 있으며 천 리 안에 연기 나는 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형세가 너무나도 곤궁하고 쪼들리니, 다시 무엇을 믿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오직 밤낮으로 서쪽을 바라보며 이 망해 가는 위급을 건져 주시는 일은 중국에 달렸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대운을 다시 바라기는 어렵고 이미 병졸을 다시 뽑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군량도 다시 댈 수 없으니,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아무리 우리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신들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이 적들이 하루라도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만약 천조에서 위신을 멀리까지 퍼서 그 봉국해 달라는 조목만 허락하여 적이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해 주면, 우리나라는 그 간에 남은 백성들을 거두어 키우고 훈련시켜 늦게나마 도모하여 망해 가던 남은 실마리를 연장하게 하고 외롭게 버려진 백성들을 크게 보호할 수 있으니, 그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만저만한 다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공손히 듣고 기다릴 뿐이지 어찌 거기에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노야께서 불쌍히 살피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어 또 생각해 보니, 우리 임금께서 갑자기 왜구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잃고 서쪽으로 달려가 조정에 우러러 호소하며 감히 위급을 아릴 때에 망하지 않은 것은 겨우 터럭 하나 차이였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천조는 대병을 선발하고 전량을 써 가며 강인한 적군을 공격하여 멸망하려는 속국을 보존시켜 여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진 은혜가 너무도 흠족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 뼈에 살을 붙이는 격이니, 지나간 역사에서 찾더라도 중국이 변방의 번국을 구원한 일은 오늘과 같은 예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君臣은 비록 몸이 가루가 되어 떨어져 죽는다 해도 황운을 만에 하나도 갚을 수 없습니다.²⁹⁾

서에는 명나라 군대의 소극적인 참여로 지리멸렬해지는 임진왜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독촉하기 위하여 간절하게 명나라 장수를 설득하고 있

29)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9, 『回報顧經略 養謙 筭 甲午』.

다. 이것은 하나의 작품이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명나라 장수에게 올리는 애절한 하소연이다.

상소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큰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큰 포부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상소문은 응지의 설계와 경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하면 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술 문장이 된다. 그냥 소일거리로 문예의 미에 젖어 소박한 미를 추구하는 글과는 차이가 난다. 상소문은 현실에 적용되는 하나의 논문이며 같고 닮은 인생의 총체이다. 자신의 경륜과 비교하여 문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이 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역사나 지식의 축적을 통한 문장 강화를 꾸준히 해야 한다. 노력이 현달하여 높은 자리에 앉아야 천하를 함께 착하게 할 수 있고 혜택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천하에 대한 넓은 시각과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은 관료적인 경륜이 부족하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국량이 큰 사람이 경제치용에 관한 글들을 잘 쓸 수 있는 것이다.

유성룡은 1594년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提調가 되어 『紀效新書』를 講解하였다. 또, 호서의 寺社位田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군량미를 보충하고 鳥嶺에 官屯田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명나라와 일본과의 화의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군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전쟁이 끝나가자 전장을 누비며 기진맥진한 유성룡의 공적이 하늘을 찌르자 이를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유성룡을 헐뜯기 시작했다. 유성룡은 왜 삭탈관직을 당했는가?

무술년(1598, 선조31) 主事 丁應泰가 경리 양호를 탄핵하였는데, 내용은 군사들을 못살게 굴어 원망이 많았고, 패배한 것을 숨기고 공으로 삼아 軍門, 監軍과 함께 황제를 기만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황제가 크게 노하여 給事中 徐觀瀾을 파견하여 정응태와 함께 서울에 와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경리는 파직되어 河南으로 돌아가고 萬世德이 후임으로 왔다. 상이 직산에서 의 싸움을 생각해서 대신 한 사람을 보내서 경리를 위하여 그의 원통함을 변명하려 하였다. 임금의 생각에는 대체로 공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내외의 일이 많았으므로 그만두고 마침내 좌의정 李元翼을 보내게 되었다. 이원익이 중국에 도착하자 정응태가 또, 우리가 왜와 통하여 임진년에 요동을 침범하려 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침입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 상은 이 말이 분하고 불쾌해서 避位하겠다는 말을 하고 며칠 동안 정사를 보지 않으니, 공이 백관을 인솔하고 나아가 정사에 임할 것을 간하였다.

지평 李爾瞻이 앞장서서 공이 辨誣할 일을 맡아 燕行을 자청하지 않은 것을 탄핵하여 상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집정자가 또 은밀히 그의 문객 몇 사람을 시켜 상소하여 배척하며 士論이라 하였다. 정인홍이 평소 공에게 깊이 노여움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의 문객 文弘道가 정언이 되어 온갖 방법으로 공을 헐뜯었는데, 모두 공이 主和했다는 것으로 핑계를 삼았다. 이에 공이 계속하여 차자를 올려 실책을 들어가며 스스로를 탄핵하니, 곧 정승에서 파직하고 이어서 관작을 삭탈하였다.³⁰⁾

유성룡은 왜 연경에 가지 않았을까? 하나는 경리 양호를 변무하는 일인데 유성룡이 직접 연경에 가기를 바랐으나 가지 않았고, 또 정응태가 임진왜란이 우리나라가 요동을 침범하려다가 도리어 일본의 침입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변무를 위하여 유성룡이 연경에 가주기를 바랐으나 유성룡은 연경을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올려진 왕조실록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삼가 어제 대간이 아뢴 말을 보니, 陳奏使를 시임 대신 중에 사고가 없는 자로 차출해서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이 일은 극히 침통하고 급박하니, 진주사를 보내 辨誣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시임 대신 중에 혹은 병

30) 許穆, 『眉叟記言』 권38, 『西厓遺事』.

이 있고 혹은 밖에 나갔으니 신이 마땅히 가야 하겠지만, 軍門의 제본에 비록 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신이 전일에 경기에 나갔던 일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신은 체면상 국서를 받들고 중국 사대부들을 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자기의 일을 자기가 발명해서는 남의 마음을 감동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전일에 신이 金應南과 이 일을 의논하니, 응남이 ‘대신 중에 두 사람이 지적을 당했는데 나만 사고가 없으니 만약 대신이 중국에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시임 대신이 가야 한다는 의논이 없었기에 미처 아뢰지 않았으나 아랫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신의 생각에 백관들이 문文할 때에 응남이 없을 수 없으므로 아뢰었던 것이고, 또 자청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양초의 운반을 독려하겠다고 한 것도 실은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가의 큰일이어서 신중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원래 어리석고 용렬한 자질에다 요즘에는 心火가 올라오고 정신도 혼미하여 모든 일을 헤아릴 수 없는데 이러한 큰일을 당하게 되면 황공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를 것이므로 감히 와서 아뢰입니다. 만약 신이 중국에 가는 일을 과연 여러 신하들의 뜻대로 한다면 자기를 발명하는 격이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이 비록 파리하고 병들었으나 三道로 내려가서 양초 운반을 독려하고 김응남을 시켜 중국에 가서 변무케 하는 것이 사체에 마땅할 것입니다. 대간이 이른바 사고가 없다는 것도 아마 이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본직을 사면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변무하게 하는 것도 마땅할까 합니다. 국사에는 어렵다고 사양하지 않는 법이니, 신이 멀리 가기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국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며 또한 못사람의 의논도 이와 같으므로 낱날이 아뢰어 성상의 재가를 받으려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어찌 경솔하게 체직하겠는가. 중국에 가는 일은 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아래에서 상의하여 하도록 하라.”하였다.³¹⁾

유성룡은 자신이 변무사로 적격이 아니며 명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임금에게 아뢰고 있다. 이 때문에 선조임금이 노했다는 것이다. 이이

31) 『선조실록』, 1597년 10월 23일 기사 참조.

침은 이 사실을 들어 유성룡이 화의를 했다고 탄핵을 요구하였다. 유성룡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파직시켜 달라고 스스로를 탄핵하였다.

엎드려 생각건대 보잘것없고 우매한 신이 임금을 섬김이 변변치 못하여 조정에는 용납받기 어려운 극악함이 있고 국가에는 사면받기 어려운 죄명을 입었습니다. …… 전하께서 입으신 바는 진실로 천하의 극심한 변란이고 미천한 신이 연루된 바는 또한 신하의 큰 죄입니다. …… 국가에는 하루라도 임금의 명령이 없을 수 없고, 신하는 하루라도 국사를 여쭙고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리는 저 하늘이 운행하고 해가 항상 떠 있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 대저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신하의 대절이니, 신이 아무리 어둡고 용렬하나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신하 자신이 죄 없는 처지에 있게 된 뒤에라야 국가를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앞서 핑계를 대며 불충을 저지른 죄가 있었고 뒤에는 사당을 부식하여 권세를 탐낸 악행이 있어서, 무릇 예전의 신하들이 저지른 허다한 죄목이 모두 신의 일신에 모여 능히 씻을 수 없으니, 신은 곧 좋은 때의 한 죄인일 뿐입니다. 嶺海의 밝은 신이 죽어야 할 장소요, 조정의 중요한 자리는 이미 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나라 사람들의 말이 더욱 심하고 흉흉하여 물 끓듯이 상소하여 신을 공격하니, 어찌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 엎드려 빌건대, 성상께서는 크게 결단을 내려 속히 신의 직위를 체탈하시고, 충정으로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을 다시 선출하여 대신을 삼아 명 나라 조정에 주청하여 원통한 무고를 소상히 밝히소서. 그러면 조치가 정대하고 인심이 감복하여 말은 순하고 이치는 곧아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신은 물러나 鼎鑊에서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의리에서 찾아보니, 진실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글을 쓰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아뢰 바를 모르겠습니다.³²⁾

이이첨, 정인홍, 문홍도, 등 복인들의 계속되는 탄핵에 변명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유성룡은 그 이전부터 자주 사직상소를 올렸다. 이 일을 당하

32)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5, 『辭職劄子 戊戌九月』.

여 자기를 관직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스스로를 비판하였다. 유성룡이 스스로를 탄핵하는 상소문에는 절박한 호흡이 있고, 대구와 대조의 수사가 미려하게 사용되어 문장의 유려함과 품격이 살아있으며, 문장마다 위풍당당함이 있었다. 문장의 화려함과 스스로 물러나려는 용기가 빛어내는 상소문의 미의식은 정정당당하고 양심적인 어조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상소문의 미학이자 반대파들에 대응하는 소통의 미학이었다.

당초 대간이 올린 계는 조신 사이의 국사에 서로 깨우침이 될 만한 절실한 말이고, 또한 의론한바 한 가지 일은 단지 신이 스스로 처한 도리로 보아 마땅히 받아들여 허물로 삼고 미치지 못한 바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얼굴을 들고 공무를 보고 나와서 봉사의 일을 다스리고 있었더니, 신을 공박하는 상소가 잇따르고 공박하는 말이 더욱더 긴박하니, 이미 신하가 감히 편안하게 스스로 안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성균관 유생의 상소는 힘을 남기지 않고 공박하였습니다. 다른 죄목은 비록 지극히 추악하지만 모여드는 모든 더러움은 신이 스스로 취한 바이니, 어찌 감히 많은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단의 논박은 신이 차마 읽지 못하고 또 차마 쓰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불행하게도 국가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여 오랫동안 사퇴하지 못하여 항상 피로하고 유연하며 어두워 직무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였으나, 이 항목이 신에게 가해질 줄은 실로 천만 번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³³⁾

유성룡은 삭탈관직이 되고 말았다. 유성룡은 억울하고 기가 차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유성룡은 대인답게 모든 것을 털어 버렸다. 임진왜란은 1598년 9월에 그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전장을 누비며 나라를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유성룡에 대한 평가는 의외였다. 그는 비난과 조롱으로 험뜯기는 무능한 재상이었다. 그에게 악의적인 상소가 빗발쳤다. 특히 성균관

33)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권5, 『辭職劄子 十月初三日』.

유생들의 상소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유성룡은 물러나기를 원했다. 임진왜란의 공이 유성룡에게 주목되자 반대당파에서는 유성룡을 헐뜯기에 혈안이 되었다. 선조임금 역시 유성룡과 이순신의 공이 하늘을 찌르자 무능한 임금으로 낙인 찍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비자 說難 편에 이르기를 용은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에는 逆鱗이라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으니 그에게 유세하고자 하는 자는 역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만 한다면 유세는 대체로 성공할 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천정에는 역린이 유난히 크게 그려진 용의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은 임금과 소통할 때 신하들에게 임금의 역린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계를 드리우고 있다. 이것이 군신 간에 소통하는 방법이다. 서에는 선조임금의 역린을 건드린 것인가?

유성룡은 조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깨끗이 털어 버렸다. 인생은 한바탕 물거품 같은 것. 유성룡은 고향으로 돌아가 임진왜란을 되돌아보며 전장 중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를 정리하며 『징비록』의 집필에 들어갔다. 그 당시를 지어진 시 한 수가 그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貧賤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	貧賤人所厭
富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라	富貴人所求
슬프고 기쁘고 얻고 잃는 동안	悲歡與得喪
세상사 시끄러움 그칠 줄 모르지만	擾擾不知休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人生在世間
큰 바다에 하나의 뜬 거품인 것을	大海一浮漚
백 년의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百年能幾何

인생만사가 참으로 아득하기만
 거연히 티끌 망상 떨쳐버리고
 한 번 크게 웃고 西樓에 기댄다

萬事眞悠悠
 居然了塵妄
 一笑倚西樓³⁴⁾

한바탕 휩쓸고 간 임진왜란 그렇게 분주하게 목숨을 걸고 전장을 뛰어 다녔건만 그에게 돌아온 건 조롱과 비난이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은 그를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그를 우러러 하늘이 낸 인재라고 칭송하건만 당파로 갈라진 당시의 관료들은 당파싸움에 취해 정론을 버리고 별 때 처럼 달려들어 그를 헐뜯었다. 이 시는 만년의 서애의 심경이 잘 드러나 있다. 서애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큰 바다에 뜬 하나의 물거품 것일”이라고 읊었다. 들끓는 조정의 여론에 임진왜란을 돌아보며 더러운 속세의 망상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려고 하였다. 이 시는 무거운 짐을 벗고 한번 웃고 서루에서 기대어 시원하게 세상사 잊어 주리라는 서애의 넉넉한 군자의 도리가 함의되어 있었다. 서애는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바라보지 않았다.

1598년 명나라 經略 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해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복인들의 탄핵으로 관작을 삭탈 당했다가 1600년에 복관되었으나 다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1604년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道學·文章·德行·글씨로 이름을 떨쳤고, 특히 영남 유생들의 추앙을 받았다. 묘지는 안동시 풍산읍 수리 뒷산에 있다. 안동의 屏山書院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西厓集』·『懲愆錄』·『愼終錄』·『永慕錄』·『觀化錄』·『雲巖雜記』·『亂後雜錄』·『喪禮考證』·『戊午黨譜』·『鍼經要義』 등이 있다. 편서로는 『大學衍義抄』·『皇華集』·『九經衍義』·『文山集』·『정충록』·

34)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題西樓二首』.

『포은집』·『퇴계집』·『孝經大義』·『퇴계선생연보』 등이 있다. 그러나 그의 저서에 대해 문인 鄭經世가 『西厓行狀』에서 “평생 지은 시문이 임진병화 때 없어졌으며, 이제 문집 10권과 『신종록』·『영모록』·『징비록』 등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낸 인물 유성룡은 혼란의 시대를 맞아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희대의 인물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事必歸正하는 것. 그리고 200여년이 지난 뒤에 정조 임금의 유성룡을 임진왜란 최고의 인물로 평가 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다.

빛나는 공적을 새기는 이정의 솔	煌煌彝鼎
제향과 시호를 태상사에서 정하네	太常則有
공적을 이정에 새겨서 기록하니	銘以紀之
그 이름 문충공 유성룡이라	曰文忠柳
저 주나라 기산의 석고처럼	與彼石鼓
저 한나라 기린각과 함께	暨厥麟閣
그 아름다운 이름 가지런히 짝하여	休美齊匹
백세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으리라	百代不泐
선조임금이 다시 번성하여 일어남은	宣廟中興
그 공이 마땅히 경에게 있도다	卿食其當
분주히 상주문을 올려 왜란을 물리침이	奔奏禦侮
명나라에 구원병 한 방법이 있었네	在西一方
뛰어난 책략으로 전란을 충지휘하여	以籌以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였도다	盡乃心力
임금의 행차는 다시 돌아오고	龍馭載返
거센 전란의 파도를 길이 잠재웠다	鯨波永息
공훈은 진나라 승에 드리울만하고	功垂晉乘
이름은 조려의 솔에 무거워라	名重趙呂
은 백성 모두들 서애를 칭송하네	咸誦西崖
농부와 길쌈하는 아낙네들 까지도	農夫紅女

대대로 후손을 후하게 錄用하여	世世錄後
작록을 세습하고 인끈을 차게 하라	襲爵佩紱
근래에 서애유집 꼼꼼히 읽느라	近閱遺集
밤늦도록 촛불을 밝히곤 했었다오	筵燭屢跋
그 가운데 가장 우뚝한 것은	最掣然者
성곽과 방호의 방략이로다	城壕方略
이때에 자랑스런 두 후손이	是時兩孫
금방에 나란히 이름을 걸었도다	金榜聯擢
교목의 무성한 그늘에	喬木之蔭
한림과 기랑이 배출되니	翰圈騎郎
문장을 관장하는 箕星이여	維星有箕
그 정령의 빛을 접하는 듯	若接精光
음식의 소금과 매실처럼 배의 노처럼	鹽梅舟楫
문득 그 보필의 감회가 밝게 떠오른다오	輒起曠想
영남으로 명을 달리게 하니	馳命嶠南
경이여 부디 내 잔을 흠향해 주시오	予酌卿饗 ³⁵⁾

유성룡의 공적을 말함에 간단하면서도 절실한 표현은 이만한 것도 드물다. 정조 임금의 임진왜란 시절 유성룡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감동하여 친히 제문을 지었다. 유성룡은 정조에 의해 200년 이후에 재조명되었다.

정조 임금은 입란공신 유성룡을 위해 극찬하면서 정성을 다해 제문을 지었다. 주나라의 석고가를 의식하고 한나라 무제가 기린이가 나타났다고 기린각을 세웠듯이 정조는 서애 유성룡을 致祭하였다. 정조는 주나라 종묘의 큰 종에 이름을 새기듯 유성룡의 이름을 제문에 새겼다.

정조 임금은 서애를 은나라 때 충신 부열에 견주었다. 은나라 高宗이 재상 傅說에게 “만약 국에 간을 맞추려거든 그대는 鹽梅가 되라.”고 하였다.(『書經』『說命下』) 舟楫은 배와 노란 뜻으로, 왕정을 돕는 재상의 역할

35) 正祖, 『弘齋全書』 권23, 『文忠公柳成龍致祭文』.

을 비유하는 말이다. 은나라 고종이 부열을 발탁하여 재상의 일을 맡기고 자신을 가르쳐 주기를 당부하면서 “만약 큰 내를 건너고자 한다면 너로써 배를 짓는 노를 삼을 것이다.” 한 데서 유래하였다.(『書經』『說命上』) 정조 임금은 서애를 극찬하여 미사여구를 아끼지 않았다. 서애 유성룡의 온당한 평가는 정조임금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정조는 文忠公 柳成龍 집안에 간직한 명나라의 여러 장수들의 서화첩을 보고서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明나라 여러 장수들의 서첩 두 권과 화첩 한 권은 故 재상 文忠公 柳成龍과 오가면서 주고받은 것들이다. 그 흥취가 넘치는 한 자쯤 되는 화폭 속에 상세하면서 두터운 情誼가 담긴 내용들은 원만하여 경계가 없었고, 가끔 근심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과 長者다운 기풍이 많았다. 전투하고 수비하는 기회의 알맞음과 공물을 봉진하는 데 있어서 온편함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재주와 덕행을 미루어 인정해 주는 것과 충성과 의리를 격양시키고 권면하는 일을 논하는 데 이르러서는 또한 이른바 함께 일을 할 만한 사람과 함께 하고 함께 말할 만한 사람과 말을 한다는 것이며,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체로 여기서 故 재상이 재상다운 까닭을 지금도 상상해 볼 수 있으니 어찌 옛날의 진기한 자취라고만 말하겠는가.

내가 재상에 대하여 특별히 감회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다. 요즘 風氣는 날로 얇아지고 인제는 갈수록 등급이 낮아져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기저동작이 모두 형식에만 얽매어 있다. 그런데 무릇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과 예의와 음악, 그리고 兵事와 農政에 대한 일을 가슴속에 잔뜩 쌓아 두었다가 상자를 거꾸로 하여 쏟아 내듯 하였으니, 고 유성룡 재상 같은 분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일찍이 그의 遺集을 가져다 보고 수집하여 實用에다 조처하려고 생각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 지역의 여러 고을에 군사 1만 명을 양성해야 한다는 說은 壯勇營의 새로운 제도와 은연중 합치가 되어, 장용영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규모를 그의 설에 의거하여 실시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華城을 쌓을 때에 丈數를 계산하고 높낮이를 헤아리며, 토산물을 바치는 노정을 따져 보고, 모든 답장은 일제히 우뚝하게 하며, 종횡으로 교차되는 큰길을 모

두 질서가 있게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아 성을 이룩하므로 役事를 권면하기 위해 치는 북소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한 것도 고 상신이 남겨준 계책에 많이 의뢰하지 않음이 없었다.

대저 자신이 당시에 기용되어서는 중신으로서의 계책이 명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고, 말을 후세에 전한 것으로는 헤아린 지략이 지금까지 국가에 이로움이 되고 있다. 山河는 예전과 같고 典刑은 멀지 않으며, 전해지는 운취와 남은 공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연히 감탄하면서 九原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니, 이것이 어찌 얕은 견해나 미미한 간언을 통해서 이를 수 있는 것이겠는가. 傳에 이르기를, “그 동량재를 두터운 나무로 하지 않으면 무거움을 떠맡을 수 없다.”고 하니, 무겁기로는 국가만 한 것이 없고, 동량재가 되기에 재능만 한 것이 없다. 혹시라도 고 상신에게 부끄러운 기색이 없을 자, 아, 드물도다.³⁶⁾

정조는 여기에서 특별히 서애 유성룡의 임진왜란 당시 계책을 극찬하고 그의 계책을 활용하였다. 이를테면 성곽의 曲城과 譙樓의 제도는 文忠公 柳成龍이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다.³⁷⁾ 정조는 수원화성을 쌓으면서 유성룡의 성곽에 대한 방책을 참고하였다. 정조는 서애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西厓 柳成龍은 젊어서 퇴계에게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을 만나 전장의 급보가 빈번히 날아들고 공문서가 산처럼 쌓였는데 한편으로 답을 하고 한편으로 사람을 접하는 것이 모두 시의적절하였다. 申欽은 象村手記에서 “공은 내가 글씨를 빨리 쓴다고 하여 반드시 나에게 붓을 잡으라고 명하고 입으로 불러 문장을 만드는데, 줄줄이 이어지는 문서나 편지를 비바람 몰아치듯 신속히 만들어 내서 붓이 멈출 겨를이 없었지만 문장은 점 하나 더할 것이 완전하게 격을 이루었고, 奏咨文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처럼 재능을 갖추고 이처럼 문장력을 지닌 사람은 가히 시대마다

36) 正祖, 『弘齋全書』 권55, 「題文忠公柳成龍家藏皇朝諸將書畫帖」.

37) 正祖, 『弘齋全書』 권63, 「城華籌略」.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의 하자를 찾아내려는 다소의 의논이 있더라도 그것은 치우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저 혈뜻은 사람들을 故 相臣이 처한 시대에 처하게 하고 고 상신이 맡았던 일을 행하게 한다면 그런 무리는 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고 상신의 만분의 일이라도 감당하겠는가. 옛날 唐 太宗이 李泌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의 정신은 몸보다 크다.”라고 하였는데 나도 서애에 대해서 또한 그렇게 말한다. 대개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우뚝이 巨人의 뜻이 있었다. 처음 훈련도감을 창설했을 때 射手와 殺手와 砲手를 설치하였고, 또 畿內에 屯田을 설치하여 군사 2만을 기르되 반은 서울에 두고 반은 둔전에 두게 하여 군사를 농민 속에 두는 뜻을 담으려고 했다. 계책은 비록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처럼 좋은 경륜과 좋은 계책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五衛의 제도가 혁파되고 나서 국가에서 믿고서 급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훈련도감의 군사뿐인데, 또 미리 養兵의 폐단을 생각하여 半農半兵의 설을 주장하였으니, 神機와 遠慮는 참으로 우리나라의 留侯인 것이다. 당시에 토지 제도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折受法을 만들어 세법이 정해지게 하여 지금에 이르러서 개척되지 않은 들이 없고 개간되지 않은 토지가 없게 되었으니 이것은 또 얼마나 큰 사업인가. 혹자는 절수법의 폐단을 가지고 서애에게 허물을 돌리기도 하지만 三代의 정치도 더하거나 뺄 것이 있는데 하물며 말류의 폐단이 어찌 법의 죄이겠는가. 이런 경우는 지금 사람이 애당초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남의 흠을 가려서 자기의 기분만 후련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참으로 제 분수를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만 보인 것이다.³⁸⁾

서애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서애의 상소를 언급한다. 임진왜란 동안 그 많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고 장계를 올리며 중국의 장군들에게도 보고를 해야 했고 황제에게도 간절한 상소를 올려야 했다. 서애는 문장의 대가였다. 임진왜란 동안 서애는 1000여 편의 글을 지었다. 위의 글에서 申欽은 『象村手記』에서 “공은 내가 글씨를 빨리 쓴다고 하여 반드시 나에게 붓을 잡으라고 명하고 입으로 불러 문장을 만드는데, 줄줄이

38) 正祖, 『弘齋全書』 권171, 「人物 1」.

이어지는 문서나 편지를 비바람 몰아치듯 신속히 만들어 내서 붓이 멈출 겨를이 없었지만 문장은 점 하나 더할 것 없이 완전하게 격을 이루었고, 奏咨文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였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처럼 재능을 갖추고 이처럼 문장력을 지닌 사람은 가히 시대마다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겠다.”고 했다. 정조도 서애의 상소문의 문장과 그의 경륜에 대해 극찬하였다. 서애의 상소문은 소통의 미학이었으며 나라를 구했다.

정조는 “屯田은 훌륭한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었다. 재상 유성룡이 都監을 설치하여 군병 1만 명을 설치하고 그 반을 나누어 둔전을 경영하여 곡식을 비축해서 군량으로 삼으려고 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京畿 안의 두세 山郡에 壯勇營의 鄉軍 2哨를 두고 둔전을 설치하여 봄과 여름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활 쏘며 사냥하도록 하였다. 땅에서 나는 곡식을 비축하여 그 군사들의 廩料를 주고 나머지를 취하여 장비를 갖추는 데 쓰도록 해서 兵事와 農事가 서로 의지하게 하는 뜻을 붙였다.³⁹⁾

정조는 유성룡의 1만 양병설과 둔전법을 계승하여 군대 체제를 개편하였다. 율곡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584년에 죽었다. 율곡이 경연에서 언급했다는 10만 양병설은 과연 진실인가? 그리고 임진왜란을 예견한 것인가? 지금까지도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은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성룡과 이이는 서로 친밀했으며 같은 조정에서 관료로 자주 의견을 조율했다. 정조는 유성룡의 1만 양병설을 현실성 있게 받아들였다. 유성룡이란 이름은 조선왕조실록에 선조이후 1000여 번이 등장한다. 그만큼 그는 임진왜란과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유명한 재상이었다. 그의 대부분의 평가는 상소문에 있었으며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말을 온당하게 잘하는 것이었다. 왕과의 소통, 황제와의 소

39) 正祖, 『弘齋全書』 권167, 『政事 2』.

통, 등 이것은 곳 상소라는 형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유성룡의 소통에는 수려한 수식이 들어있고 위풍당당하고 명쾌한 논리가 들어 있었다. 유성룡의 상소문에는 소통의 미학이 들어 있었다.

4. 결론

이상으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펼쳐진 서애의 상소문을 소통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전쟁을 당하여 안으로는 국정의 혼란과 임금과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명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임진왜란을 종식시켜야 하는 절대 절명의 임무를 안고 유성룡은 조정의 수장으로서 임진왜란을 진두지휘하였다. 그 중심에는 상소문이 있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중 전장의 일을 듣고 거의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임금께 치계를 올렸다. 유성룡의 상소문은 곧 소통이었다. 유성룡의 상소는 유려한 수사를 통하여 소통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있었다. 상소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큰 수양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큰 포부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상소문은 응지의 설계와 경륜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유성룡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경륜가 였다.

유성룡의 상소문에는 절박한 호흡이 있고 대구와 대조의 수사가 미려하게 사용되어 문장의 유려함과 품격이 살아있다. 문장의 화려함과 스스로 낮추고 물러나려는 용기가 빛어내는 상소문의 구상 속에는 문장마다 위풍당당함이 있었다. 이것은 상소문의 미학이자 임진왜란에 대응하는 소통의 미학이었다.

유성룡은 소통이 안 이루어진 이유로 바른말을 명백하고 통쾌하게 하지 못한다에 있다고 파악 했다. 상소문은 소통하고 설득하는 글이다. 논의가 명

확해야 되고 예증이 적실해야 되고 주장하는 바가 명쾌해야 하는 것이다. 상소문은 임금을 설득시키고 포부를 실현하려는 목적성이 강한 문학형식이다. 신뢰가 없으면 설득도 없다. 소통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성룡 상소문은 설득과 경계, 그 정성과 간절함, 겸손과 깎듯한 예의, 명쾌한 설법, 등 왕조사회에서 소통을 위한 준비는 엄격해야하며 소통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서애는 임진왜란 중에 황제를 설득하고, 왕을 설득하고, 명나라 장수들을 설득하고 세상을 설득하는 경세문장으로 대의명분을 잃지 않아야 하는 지난지고의 대업을 완수해야 했다. 그리고 미증유의 임진왜란을 당하여 누란지세의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절대 절명의 순간, 명나라구원병을 요청해야 하는 간절하고 사리에 타당한 상소는 명나라를 감동시키고 명나라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설득력이었다. 이 가운데 소통의 미학이 존재한다. 명나라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상소문의 문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명나라와 소통을 위한 외교문서를 짓느라 유성룡의 붓은 마를 날이 없었다. 유성룡의 상소는 소통의 미학이었으며 나라를 구했다.

황제와 소통하기 위한 정성은 문장에 빼곡히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시절 정보의 소통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고, 군졸과 장군, 장군과 임금 사이에 소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황제와 제후국의 관계로서 예에 맞게 소통하여야 했다.

서애는 임진왜란으로 자주 보고해야 할 일이 생기자 정치적으로나 외교상으로 청할 일 또는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중국에 임사로 관리들을 파견하였다. 이때에 파견되는 사신들은 陳奏使 혹은 奏聞使라고도 하였다.

임진왜란 중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 이루어진 주청의 내용을 보면, 명나라 측의 항의에 의한 해명, 정치적 중대사건에 대한보고, 誥命·印信의 수

령 등과 같이 요청할 일이 주가 되고, 이 밖에 연호 사용, 내정간섭에 대한 항의, 倭情 등의 보고, 人質·宿衛 등의 파송, 혹은 궁정 간의 통혼문제 등에도 주청사가 파견되었다. 또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청병·원병·파병 등에 관하여 양국 사이에 논의의 여지가 있을 때 주청사·진주사 등이 파견되었다.

탁월한 문장력과 시대를 간파하는 국량이 없으면 함부로 상소문을 짓지도 못하고, 거치른 상소문으로는 소통을 할 수 없었다. 주청은 임금의 마음을 열고 덕화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나라 황제와 문장으로 소통하는 유성룡의 지혜는 타고난 문장력이 없었으면 곤란한 일이었다. 유성룡의 상소문은 곧 소통의 미학이었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유성룡은 그의 스승 퇴계 이황이 말했듯 실로 하늘이 낸 인재였다. 앞으로 소통과 상소문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徐居正 等, 『東文選』.

正祖, 『弘齋全書』.

劉勰, 『文心雕龍』.

曹丕, 『典論』.

吳納, 『文章辨體序說』.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柳成龍, 『西厓全書』, 서애선생기념사업회.

_____, 『西厓集』, 『한국문집총간』52, 민족문화추진회.

강성준,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금장태, 「서애 유성룡의 철학사상」,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

- 구소, 1995, 16~18쪽.
- 김광순, 「서애 시평에 대한 일고찰」, 『동양문화연구』 제6집,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79, 7~13쪽.
- 김시황, 「서애 유성룡 선생의 詩敎說 연구」, 『동방한문학』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11~22쪽.
- _____, 「서애 유성룡의 문학세계」, 『한국의 철학』 제23호, 경북대 퇴계학연구소, 1995, 1~18쪽.
- 김호중, 『서애 유성룡 연구』, 새누리, 1994.
- 조민경,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조정기, 「서애 유성룡의 국방정책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최종호, 「서애 유성룡의 시문학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 홍인표, 『홍만종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투고일 2015. 10. 31 심사시작일 2015. 11. 9 심사완료일 2015. 11. 24

Abstract

The aesthetics of communication in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for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Shin, Doo-hwan

This thesis is a Discussion on he aesthetics of communication in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for *Seoae, Ryu Seong-ryong*(1542-1607). He was a great premier who got over suffering from Japanese invasion in 1592(壬辰倭亂) The Choseon(朝鮮) Dynasty period. He was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cademic aspect as well as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

Seoae, Ryu Seong-ryong(1542-1607)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is accomplished on the basic of Sung Confucianism. he was many they made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in Japanese invasion in 1592(壬辰倭亂). The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 are based on historical facts, but the construction of these eulogies is very close and the plot is unified. The realistic and vivid description makes them outstanding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 literary works. a great strategy in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It is the literary works of bureaucracy His The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was aesthetics of communication, and persuasive, be appealing, and To move his opponent a fluent writing skills. He always put his point of view with clarity and with courage. his the sentence was

save the nation in a great crisis. his the sentence was aesthetics of communication. He led us to victory in the war through his a fluent writing skills ingenious strategies.

Keyword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Japanese invasion in 1592(壬辰倭亂), 'the sentence of presenting a memorials to the king(上疏文)', communication, literary works of bureaucracy.

